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유 지 혜

설 경 옥†

이화여자대학교

물질주의 가치 추구는 한국인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이 연구는 물질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뢰로운 측정을 하고자 물질주의 가치 척도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Richins와 Dawson(1992)의 물질주의 가치 척도(Material Values Scale)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1은 번안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417명(표본 1)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척도의 요인과 동일한 3요인을 확인하였다. 원척도가 제시한 하위요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성공판단, 소유중심, 행복추구라 명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3개의 문항은 물질주의 가치 척도의 다른 언어로의 타당화 연구를 참조하여 삭제하였고, 총 15문항으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를 구성하였다. 연구 2에서는 표본 1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대학생 650명(표본 2)을 대상으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를 검증한 결과 수렴 및 변별타당도,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 392명(표본 3)과 대학생(표본 2)을 대상으로 다집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를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표본 3)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예측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 408명(표본 4)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물질주의척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의 물질주의 가치 수준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가하는 도구임을 의미한다.

주요어 : 물질주의, 한국판 물질주의척도, 신뢰도, 타당도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FR-2015S1A5A8016469).

이 논문은 유지혜(2017)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 02-3277-3918, E-mail : koseol@ewha.ac.kr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물론 아동 청소년의 행복수준도 매우 낮다. 150개국의 행복도 조사 결과 소득 상위 40개국 중 한국의 행복도는 두 번째로 낮은 39위였으며(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 & Tay, 2010),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년째 최하위다(염유식, 김경미, 이은주, 이승원, 2015). 개발도상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65개국의 경제력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불안수준은 65개국의 평균보다 높았고, 심리적 소진과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보다 2 표준편차 이상 높았다. 이 메타분석에서는 국가의 부의 수준과 불안, 심리적 소진과 스트레스 수준이 부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예외였다(Fischer & Boer, 2011).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를 설명하기 위해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가 있어 왔고, 소득불균형(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2013), 빈부격차(장승진, 2011), 사회비교(한덕웅, 2005), 그리고 과도한 물질주의 추구(구재선, 서은국, 2015)가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를 예측하였다. 이 중 물질주의는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를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변인일 수 있다(이민아, 송리라, 2014). 한국인의 물질주의는 미국뿐 아니라(Flynn, Goldsmith, & Kim, 2013) 아시아의 중국 그리고 인도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o, Jin, & Watchraversringkan, 2016). 한국인이 높은 물질주의 성향을 보이게 된 역사 배경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 주도 경제 개발 정책과 초고속 경제 성장, 계층 및 지역 간 현저한 소득 격차와 가치관 혼란 속에서 물질의 획득과 소유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게 된 것에 있다(백지숙, 박성연, 2004).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는 국내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국외에서는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Wright & Larsen, 1993), 환경 수호 행동(Hurst, Dittmar, Bond, & Kasser, 2013), 소비 행동(Ladeira, Santini, & Araujo, 2016)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가 실시될 만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물질주의가 한국인의 심리적 안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인의 물질주의를 제대로 측정할 척도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인의 심리적 안녕감 및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변인인 물질주의 변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연구 확산을 위해서 물질주의 가치 측정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Richins와 Dawson(1992)의 물질주의 가치 척도(Material Values Scale: MVS)를 한국판으로 번안 그리고 타당화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물질주의는 물질의 소유 및 획득이 삶의 중심이 되어 물질의 소유와 획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삶의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는 경향성을 의미한다(Richins & Dawson, 1992). 물질주의가 높은 개인은 돈이나 물질을 도구적, 기능적 가치를 위해 소유하고 획득하려고 하기보다 물질의 소유와 획득 자체가 목적과 동기가 되는 삶을 사는 경향이 있다. Richins와 Dawson(1992)은 물질주의 가치를 크게 물질의 소유로 성공을 판단하려는 성향(possession defined success)인 '성공판단', 소유와 획득 자체에 의미를 부여(aquisition centrality)하는 '소유중심,' 획득을 통해 행복을 추구(aquisition as the pursuit of happiness)하는 '행복추구'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정의하여 총 18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가치 척도 문항개발 과정에서 11명의 성인 소비자에게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를 묻는 개방형 질문을 하였고, 자주 언급하는 가치를 문항으로 변환하였다. 이에 더해 문헌에서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끝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물질주의를 측정하는 문항들 중 특정 행동이나 성격이 아닌 가치와 태도를 반영하는 몇 개의 문항들을 채택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였고, 총 120개 이상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그 후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여러 번 문항 개선 과정을 거쳐 30문항으로 추렸고,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로 12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척도는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833명과 성인 소비자 834명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Richins & Dawson, 1990, 1992).

최종 선정된 18문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화 연구는 물질에 대한 소유와 집착을 측정하는 Belk(1984)의 물질주의 성격 척도 중 인색(nongenerosity) 하위척도와 더불어 가치 척도(Kahle, Beatty, & Homer, 1986), 자존감 척도(Rosenberg, 1965),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Crowne & Marlowe, 1960), 생활양식 지향성을 측정하는 자발적 단순성지향 생활양식 척도(Leonard- Barton, 1981),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삶의 질 척도(Andrews & Withey, 1976)를 사용하였다. 특별히 물질주의를 성격특질로 정의한 Belk(1984)의 물질주의 성격 척도 중 인색 하위 척도는 물질주의 가치 척도와 .25($p < .001$)의 유의하지만 약한 수준의 상관을 나타냈다.

그 외에 물질주의 가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수입을 원하고, 재정적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대인관계는 덜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발적인 소박한 행동에는 덜 관여하며, 자신의 삶에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와 사회적 바람직성 간의 상관은 낮았는데, 이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물질주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 물질주의 연구에서는 Belk(1984)의 물질주의 성격 척도와 Richins와 Dawson(1992)의 물질주의 가치 척도에서 일부 문항을 골라 연구자들마다 자체적으로 물질주의를 대표한다고 여기는 몇 문항을 더 추가하여 타당화 과정 없이 사용하거나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삭제하여 사용해왔는데, 이는 물질주의 변인의 구인 타당도 및 측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 주섭중(1995)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공수단, 생활중심, 행복추구 3개 하위척도 9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전귀연(1998)은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질소유행복관, 질투, 소유, 인색 4개 하위척도 2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김정숙(1999)은 대학생 대상 행복추구, 성공추구, 소유추구 3개 하위척도 17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이은희와 김성숙(200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물질의 소유/소비가치, 사회적 성공가치, 생활중심가치 3개 하위척도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5문항에서 12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여 아동(천주영, 2003), 청소년(서정희, 석봉화, 1998; 이지혜, 김정숙, 1997), 대학생(김영신, 박지영, 2006), 주부(백경미, 이기춘, 1996) 등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물질주의를 측정했다.

물질주의 가치 척도와 혼용되었던 Belk (1984)의 물질주의 성격특질 척도는 물질주의를 소유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성인 소유욕 (possessiveness),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 그리고 명성에 대해서 느끼는 비유쾌함을 의미하는 부러움(envy), 소유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공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인 인색의 3가지 하위차원의 성격특질로 정의하였다. 물질주의 성격특질은 다른 성격특질과 유사하게 어릴 때 형성되어 환경에 의해 쉽게 바뀌지 않으며 비교적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이다. Belk(1984)는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은 소유욕이 강하고, 이기적이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부정적인 성격특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격특질로 정의된 물질주의는 구인 타당도에 문제가 있고, 문항 개발 과정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가 .09에서 .81로 나타나는 심리측정적 한계가 있었다(Richins & Dawson, 1992). 물질주의는 개인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성격특질이라기보다 개인의 삶에서 선택과 판단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 동기를 제공하는 목표인 가치에 더 가깝다(Kasser, 2016). 물질주의의 가치는 사회문화 환경이나 발달과정에서 학습되고, 개인이 속한 환경과 구조를 해석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상황에서 선택과 행동을 안내한다(Kasser, 2016; Richins, 2004). 물질주의는 인기, 명성,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재적 가치체계로 분류되며, 좋은 대인관계,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봉사, 인간으로서 성숙, 영성추구와 같은 자기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가치와 상충된다. 물질주의를 가치이자 목표로 개념화하는 학자들은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 그리고 정신건강의 부적관계는 물질주의가 부정적 성격특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주의가 외재적 가치이고, 외재적 가치 추구는 유능감, 자율성, 소속감과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 충족을 좌절시키기 때문이라 해석하였다(Kasser & Ryan, 1993, 1996).

이 연구에서는 물질주의를 가치로 개념화하고 물질주의 연구에서 널리 사용하는 Richins와 Dawson(1992)의 물질주의 가치 척도를 번안하여 남녀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 연구 1에서는 물질주의 가치 척도를 번안한 뒤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요인구조 및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다집단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를 대학생과 직장인 대상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1

연구 1은 물질주의 가치 척도를 번역 및 역번역 절차를 거쳐 번안한 후에 전국의 대학생 417명 자료(표본 1)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Richins(2004)는 미국에서 수집된 14개 자료 그리고 캐나다에서 수집된 1개 자료를 수합하여 자신이 개발한 물질주의 가치 척도의 요인구조를 재확인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6번('나는 타인의 물질적 소유물에 별 관심이 없다.'), 7번('나는 대개 내가 필요한 물건만 산다.'), 10번('나는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한다.') 문항을 제외한 15문항이 복미의 자료에는 더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Richins(2004)는 기존 18문항 물질주의 척도보

다 15문항 물질주의 척도가 신뢰도, 모형 적합도, 문항편향, 구성타당도, 문항분석 결과 더 우수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는 15문항 물질주의척도를 사용하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Richins(2004)의 연구는 원척도가 개발된 영어권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자료만으로 재분석한 한계가 있고, 이 연구의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는 Richins가 2004년에 제시한 15문항 물질주의 척도와 요인구조가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 태국, 일본, 덴마크의 비영어권 국가에서 타당화된 물질주의 가치 척도 연구에 의하면 18문항 원척도의 하위 3요인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나 문화권에 따라 각각의 하위요인에서 문제가 되는 문항에는 차이가 있었다(Griffin, Babin, & Christensen, 2004; Watchravesringkan, 2012; Wong, Rindfleisch, & Burroughs, 2003). 따라서 연구 1에서는 Richins(2004)가 제시한 15문항 3요인 구조 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설정하여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표본 1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연구 모형) 결과와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전국 대학생 417명(표본 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고, 표본 1 연구 참여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과 사회관계망 사이트 온라인 홍보로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웹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안내 받았고, 연구 참여 안내문을 읽고 동의한 후 자발적으

로 참여하였으며, 설문을 끝까지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1000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수집된 표본 1의 남자는 115명(27.6%)이었고, 여자는 302명(72.4%)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만 21.89세($SD=2.15$)였다. 1학년이 17명으로 4.1%를, 2학년이 115명으로 27.6%를, 3학년이 117명으로 28.1%를, 4학년 이상이 167명으로 40.1%를 차지했고, 무응답은 1명으로 0.2%였다.

측정도구

물질주의

이 연구에서 타당화한 물질주의 가치 척도는 물질주의 측정을 위해 Richins와 Dawson(1992)이 개발하였고, 총 18개 문항 3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성공판단’ 물질주의 하위척도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는 6문항(예: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유중심’ 물질주의 하위척도는 삶에서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7문항(예: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추구’ 물질주의 하위척도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행복한 삶의 필수인지 측정하는 5문항(예: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모두 5점 Likert식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Richins와 Dawson(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성공판단 물질주의가 .74~.78, 소유중심 물질주의가 .71~.75, 행복추구 물질주의가

.73~.83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표본 1은 각각 .74, .71, .69로 나타났다.

예비 척도의 제작을 위해 우선 원저자인 Richins에게 허락을 받은 후, 번역과 역번역 절차를 거쳐 원척도를 번안하였다. 심리학 전공자 4인(상담전공 박사과정 3인, 상담전공 석사과정 1인)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문항을 이중 언어에 능통한 상담전공 석사과정생 1인이 한국어에서 영어로 역번역한 후, 번역본과 역번역본을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항들을 수정한 후에 심리학 전공 교수 1인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 완성하였다.

자료 분석

표본 1의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와 각 하위요인별 문항-총점 간 상관을 산출하였다. 물질주의 가치 척도 개발 당시 가정했던 3요인 모형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도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수 추정방식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고,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살펴보았다(Kline, 2005). 또한 비교적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TLI(Tucker Lewis Index)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별하였으며, SRMR 값은 .08 이하일 때 적합도가 우수하다고 판별하였고, RMSEA는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close fit), .08 이하일 때 양호한 적합도(reasonable fit), .10 이하일 때 보

통 적합도(mediocre fit)로 판별하였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2).

Richins가 2004년에 6번, 7번, 10번 문항을 제외하고 성공판단 5문항, 소유중심 5문항, 행복추구 5문항의 15문항으로 제시한 단축형 물질주의 척도 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설정하여 이 연구의 연구 모형과 비교하였다.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은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와 TLI지수로 비교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결 과

한국판 물질주의척도 신뢰도 분석

표본 1로 물질주의 가치 척도 3요인별 각각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성공판단은 .74, 소유중심은 .71, 행복추구는 .69로 나타났다. 대부분 문항들이 각 하위요인들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문항으로 보였으나 3번, 10번, 14번 문항의 경우는 제거할 경우 내적 일치도가 .01~.02 상승하였으며, 하위요인별 문항-총점 간 상관에서도 .3 이하의 값을 보여 삭제 대상으로 고려하였고, 선행연구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최종 삭제를 결정하였다.

한국판 물질주의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본 1로 실시한 물질주의 가치 척도 18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모형 적합도 지수는 $\chi^2_{(132)}=507.567$, CFI=.813, TLI=.784, SRMR=.067, RMSEA=.083으로 모형 적합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번(‘사람들이 소유한 물질의 양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지표는 아니다.’), 10번(‘나는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한다.’), 14번(‘나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40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국외 물질주의 가치 척도 타당화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서 국외 연구에서는 역채점 문항의 번안 어려움으로 인해 역채점 문항인 3번과 14번 문항을 삭제한 후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고(Griffin et al., 2004; Watchravesringkan, 2012; Wong et al., 2003), 물질주의 가치 개념이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10번과 14번 문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Denegri et al., 2014). 이 연구에서 역시 3번과 14번 문항의 경우 역채점 문항으로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거쳐 번안하였으나 번안된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 10번 문항의 경우 원저자 의도와는 달리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문항 내용이 삶에서 물질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유중심 물질주의를 잘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14번 문항 역시 물질 소유가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추구 물질주의를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국외 물질주의 가치 척도 타당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리학 전공 교수 1인과 박사과정 2인, 석사과정 1인의 논의를 거쳐 3번, 10번, 14번 문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3번, 10번, 14

번 문항을 삭제한 15개 문항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 연구 모형 적합도는 기존 18문항과 경쟁 모형인 단축형 물질주의 척도보다 향상되었다(표 1). 비록 CFI와 TLI가 적합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SRMR이 .08 이하로 우수하고 RMSEA가 .08 수준의 우수한 적합도로 수용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Browne & Cudeck, 1992), 한국판 물질주의척도 역시 원척도 3요인 모형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쟁 모형인 Richins(2004)의 6번, 7번, 10번의 3문항을 삭제하고 15문항으로 구성된 3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chi^2_{(87)}=337.164$, CFI=.853, TLI=.823, SRMR=.062, RMSEA=.083으로 모형 적합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연구 모형 적합도가 더 좋게 나타나 3번, 10번, 14번 문항을 삭제한 연구 모형 15문항의 3요인 구조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한국판 물질주의척도 3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된 경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3요인 모형의 모든 표준화 요인계수 값들은 .37~.72사이의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세 하위요인 상관은 .73~.86이었다.

논 의

연구 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원척도 18개 문항을 번역 및

표 1. 한국판 물질주의척도(15문항) 3요인 모형 적합도 지수

(N=417)

χ^2	df	CFI	TLI	SRMR	RMSEA	신뢰구간	
						LOW	HIGH
324.779	87	.867	.839	.059	.081	.072	.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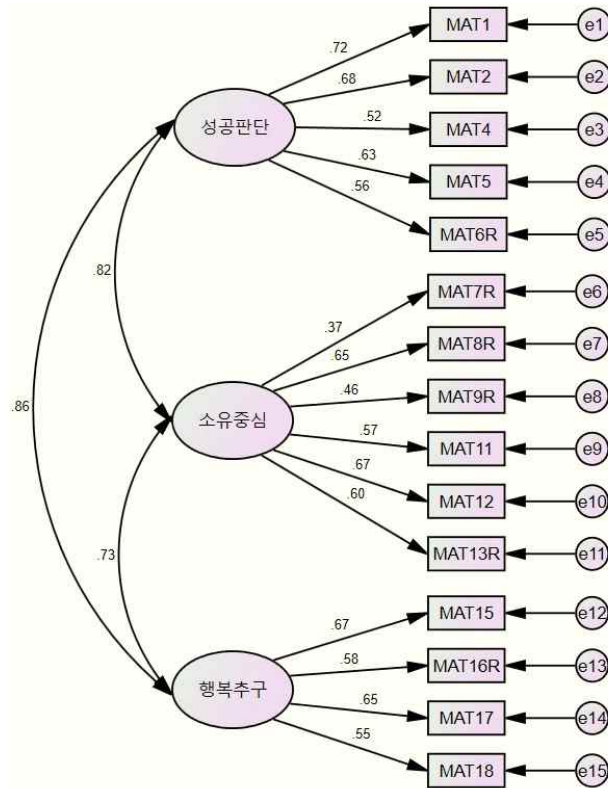


그림 1.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확인된 경로모형

역번역 절차를 거쳐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원저자가 제시한 구조를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원척도 저자 중 한명인 Richins가 2004년에 제시한 15문항 3요인 척도 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설정하였고, 한국어로 번안한 원척도 18개 문항이 한국 대학생들에게 원척도가 제시한 3요인 모형이 나타나는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원척도가 제시한 3요인 모형은 지지되었지만 3번(‘사람들이 소유한 물질의 양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지표는 아니다.’), 10번(‘나는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한다.’), 14번(‘나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3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낮았다.

원척도의 3요인 모형에서 3번, 10번, 14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기준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우선 역채점 문항(3번, 14번) 번역과정에서 드러난 언어 간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언어가 서로 다른 문화권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번역과 역번역 절차를 거친다(김아영, 임은영, 2003). 3번과 14번 문항의 경우 역채점 문항으로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거쳐 번안하였으나 번안된 내용을 한번에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요인부하량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3번, 14번 문항의 낮은 요인부하량은 물질주의 가치 척도의 문화 간 타당도 및 번역의 타당화를 실시한 다른 국외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Griffin et al., 2004; Watchravesringkan, 2012; Wong et al., 2003). 구체적으로 Wong 등(2003)은 서양 문화권에서 개발된 척도를 동양 문화권에서 현지 언어로 번역했을 때 측정 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이 확립되기 어려운 이유로 역채점 문항의 언어 간 문화차를 제시하였다.

동양뿐 아니라 같은 서양 문화권에서도 물질주의 가치 척도 역채점 문항은 척도 타당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덴마크인, 프랑스인,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척도를 타당화한 Griffin 등(2004)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척도가 덴마크 표본에는 적합하였으나 프랑스와 러시아 표본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역시 그 이유를 교차 문화 연구에서 역채점 문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측정의 문제로 보아 3번과 14번 문항을 모든 표본의 최종 척도에서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부정문으로 질문하였을 때 ‘아니오(no)’는 그 부정문에 대한 동의지만, 러시아어에서 부정문으로 된 질문에 대한 동의는 ‘예(yes)’로 답한다. 이 점은 한국어도 마찬가지이다.

10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낮은 이유는 질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 문화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일 수 있다. 10번 문항, ‘나는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한다.’ 경우 원저자는 문항 내용이 실용적인 이유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건 자체를 소유하고 획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유중심 물질주의를 반영한다고 여겨 문항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 문항이 번역되면서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것’

의 한국어 해석이 모호하여 원저자 의도대로 소유중심 물질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덴마크, 프랑스, 러시아 참여자를 대상으로 물질주의 척도를 타당화한 Griffin 등(2004)의 연구에서도 프랑스의 경우는 10번과 14번 문항과 소유중심 물질주의를 측정하는 다른 문항을 삭제한 후 총 11문항 2요인으로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프랑스인은 프랑스어로 번역된 10번 문항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와 동시에 ‘소유중심’ 물질주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문화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유중심 물질주의는 프랑스인들의 물질주의를 적절하게 측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성공판단과 행복추구의 하위영역으로만 프랑스판 물질주의척도를 구성하였다. 칠레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물질주의척도를 타당화한 Denegri 등(2014)의 연구에서도 10번, 14번 문항을 비롯하여 소유중심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문항을 삭제한 후 ‘사회적 성공’과 ‘개인적 행복’ 2요인으로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포함되는 중국의 경우에는 성공판단과 행복추구가 1요인으로 수렴하여 ‘성공 및 행복’과 ‘중심’ 2요인으로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Liao & Wang, 2017). 사실 Richins(2004)의 미국인과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척도 구조를 재확인하는 연구에서도 10번 문항은 문항분석 과정에서 외적 준거, 내적 준거 및 판정 준거를 충족시키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다양한 문화권에서 실시된 물질주의 가치 척도 타당화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3번, 10번, 14번 문항을 삭제하였고, 총 15개 문항 3요인 구조로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최

중 모형은 6번, 7번, 10번 문항을 삭제한 Richins(2004)의 15문항 경쟁 모형보다 심리측정 측면에서 더 우수하였고, 여러 문화권에서 실시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이 연구의 최종 모형이 국내 대학생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

연구 2는 표본 1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대학생 650명 자료(표본 2)로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돈에 대한 태도와 상관을 확인하였고, 동시타당도 확인을 위해 열망 척도(Aspiration Index) 하위척도인 재정적 성공에 대한 열망과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원칙도 개발 당시 사용했던 준거들과 유사한 삶의 만족, 자존감, 외로움, 우울, 상태불안과 물질주의의 관계를 통해 예측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 사용된 표본은 대학생 표본으로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원칙도 역시 대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Richins & Dawson, 1992), 연구 1의 결과를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에게도 일반화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직장인 392명 자료(표본 3)로 다집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표본 3으로 삶의 만족과 물질주의의 관계를 통해 예측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끝으로 여자 대학생 408명 자료(표본 4)를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수집하여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표본 2 여자표본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에 온라인 설문 참여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참여에 동의한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에 참여한 대가로 5000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남자표본은 자료수집 인터넷 리서치 회사에 패넬로 등록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발적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가로 리서치 회사의 규정에 따른 포인트를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남자는 330명(50.8%)이었고, 여자는 320명(49.2%)이 참여하였으며, 평균연령은 만 22.42세($SD=2.27$)였다. 1학년이 77명으로 11.8%를, 2학년이 152명으로 23.4%를, 3학년이 183명으로 28.2%를, 4학년 이상이 238명으로 36.6%를 차지했다.

표본 3은 수도권 지역에서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무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기업의 온라인 모임 사이트, 친목도모 모임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에 참여한 대가로 5000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남자는 292명(74.5%)이었고, 여자는 100명(25.5%)이 참여하였으며, 평균연령은 만 38.02세($SD=4.13$)였다. 학력은 고졸이 9명(2.3%), 초대졸이 18명(4.6%), 대졸이 255명(65.1%), 석사학위가 90명(23.0%), 박사학위가 20명(5.1%)이었다. 월평균 수입은 평균이 509.18만원($SD=280.63$)이었다.

표본 4는 서울 소재 8개 대학에 온라인 설문 참여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참여에 동의한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 간

격으로 두 번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에 참여한 대가로 설문에 참여할 때마다 5000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1차 설문에는 총 515명이 참여하였고, 평균연령은 만 21.29세($SD=1.89$)였다. 1학년이 104명으로 20.2%를, 2학년이 133명으로 25.8%를, 3학년이 109명으로 21.2%를, 4학년 이상이 169명으로 32.8%를 차지했다. 2차 설문에는 총 408명이 참여하였고, 평균연령은 만 20.98세($SD=4.86$)였다. 1학년이 3명으로 0.7%를, 2학년이 73명으로 17.9%를, 3학년이 108명으로 26.5%를, 4학년 이상이 161명으로 39.5%를, 무응답이 63명으로 15.4%를 차지했다.

측정도구

표본 2를 대상으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 돈에 대한 태도 척도, 재정적 성공에 대한 열망 척도, 삶의 만족 척도, 자존감 척도, 외로움 척도, 우울 척도, 상태불안 척도를 측정하였고, 표본 3을 대상으로는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 그리고 삶의 만족 척도를 측정하였으며, 표본 4를 대상으로는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를 측정하였다.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태도는 Yamauchi와 Templer(1982)의 Money Attitude Scale(MAS)와 Wilhelm, Varcoe와 Fridrich(1993)의 Money Beliefs and Behavior Scale(MBBS)를 한국어로 번안한 허경옥, 백은영, 정순희(1997)의 척도 중 요인부하량이 .45 이상인 질문을 선별하여 구성한 김정훈(2002) 질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돈에 대한 태도 척도는 5개 하위영역, 안전 도구 4

문항(예: 목표를 위해 저축하는 편이다), 감정 충족 도구 3문항(예: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쓴다), 성공 척도 3문항(예: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다), 불안 원천 2문항(예: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늘 걱정이 된다), 인색한 태도 3문항(예: 물건을 살 때 마다 꼭 속아서 사는 것 같다)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한다. 이 연구 표본 2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안전 도구는 .80, 감정 충족 도구는 .80, 성공 척도는 .72, 불안 원천은 .71, 인색한 태도는 .61이었다.

재정적 성공에 대한 열망

열망 척도(Aspiration Index)는 개인이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와 도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는 자기 모습을 뜻하는 열망을 11개 하위항목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Grouzet et al., 2005). 이 척도는 4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1800여명을 대상으로 타당화 되었다(Grouzet et al., 2005). 한국판 열망 척도는 열망 척도 제작자 중 한명인 Tim Kasser로부터 Grouzet 등(2005) 연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검증을 할 때 사용했던 척도를 제공받았다. 열망 척도는 9점 Likert식 척도로, 필요한 하위요인들의 조합으로 자유롭게 척도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척도와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열망 척도 중 재정적 성공에 대한 열망을 측정하는 4개 문항(예: 값비싼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표본 2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였다.

삶의 만족

삶의 만족 측정은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SWLS)을 임영진(2012)이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식 5개의 문항(예: 나는 대체로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본 2에서는 .87, 표본 3에서는 .90이었다.

자존감

자존감 측정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을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타당화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식 총 10문항으로 이 중 5문항은 긍정적 문항(예: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이고, 5문항은 부정적 문항(예: 때때로 나는 구체불능이라는 생각이 든다)이다. 표본 2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다.

외로움

외로움 측정은 Peplau와 Cutrona(1980)이 개정한 UCLA Loneliness Scale를 박선영과 도현심(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여부를 묻는 문항이 10문항(예: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사이가 좋다고 느낀다), 불만족 문항이 10문항(예: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으로, 4점 Likert식 척도이다. 만족 문항을 역채점한 후 합산하며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본 2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였다.

우울

우울 측정은 최상진, 전경구, 양병창(2001)이

Radloff(1977)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척도를 기반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인들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고,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본 2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다.

상태불안

불안 측정은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1996)가 Spielberger(1983)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STAI-Y)을 한국판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 중에서 상태불안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Likert식으로 평정하고(예: 나는 걱정과 근심으로 지쳐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본 2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였다.

분석방법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표본 2에 대해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수렴 및 변별타당도와 준거관련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분석에는 SPSS 18.0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를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표본 2와 표본 3에 대해 요인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집단이 섞여있는 응답결과를 요인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다집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 동일성(scalar invariance)

의 가정이 성립하는지 확인하였다(김계수, 2010). 이 세 가지 동일성에 대한 가정은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태, 측정, 절편 동일성 가정 순서로 검증해야 하고(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모형의 적합도 검증 시 χ^2 값은 표본이 클수록 높은 값을 나타내어 표본이 클 경우 모형이 간단한 모형도 χ^2 값이 높게 나타나므로 χ^2 값은 모형 비교에만 사용하고, 모형 평가를 위해서 표본 크기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인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고려하였다. 또한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도 함께 고려하였다(송태민, 김계수, 2012). NFI, TLI, CFI는 .90 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RMSEA는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08 이하일 때 양호한 적합도(reasonable fit)로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2). 분석을 위해 Amos 18.0을 이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다집단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18.0을 이용하여 표본 3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준거관련 타당도 중 예측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끝으로 표본 4를 대상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

출하였다.

결 과

대학생 집단(표본 2)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준거관련타당도 검증결과

수렴 및 변별타당도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표본 2를 대상으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와 돈에 대한 태도 척도 사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유의했다. 이는 물질주의가 돈에 대한 태도와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 변별되는 새로운 개념임을 의미한다(표 2). 물질주의는 돈을 안전 도구로 보는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미비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감정 충족 도구로 보는 태도, 성공 척도로 보는 태도, 불안 원천으로 보는 태도와는 중간 크기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인색한 태도와는 작은 크기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와 돈에 대한 태도 중 돈을 성공 척도, 감정 충족 도구, 불안 원천으로 보는 경향성과는 강한 상관을 나타냈으나 안전 도구로 보는 태도와는 상관이 낮았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홍은실, 황덕

표 2. 표본 2 대학생 대상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와 돈에 대한 태도 척도 간 상관 (N=650)

	안전 도구	감정 충족 도구	성공 척도	불안 원천	인색한 태도
성공판단	.00	.26**	.40**	.41**	.29**
소유중심	-.17**	.40**	.25**	.25**	.14**
행복추구	-.02	.25**	.40**	.51**	.30**
물질주의 총점	-.08*	.36**	.40**	.44**	.27**

* $p < .05$, ** $p < .01$

순, 한경미, 2001). 또한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 척도, 감정 충족 도구, 불안 원천에서 높은 값을 보인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김정훈, 이은희, 2002).

준거관련타당도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 중 동시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물질주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된 열망 척도의 재정적 성공에 대한 열망 하위척도와 한국판 물질주의척도 사이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표 3). 표본 2를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정적 성공에 대한 열망은 물질주의 척도 3개의 하위영역 그리고 물질주의 총점과 모두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예측타당도 확인을 위해 물질주의 총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삶의 만족, 자존감, 외로움, 우울, 상태불안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모두 5번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물질주의가 삶의 만

족을 설명하는 정도(R^2)는 약 5.1%, 자존감을 설명하는 정도(R^2)는 약 4.4%, 외로움을 설명하는 정도(R^2)는 약 1.6%이었다. 또한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R^2)는 약 3.3%, 상태불안을 설명하는 정도(R^2)는 6.4%로 물질주의가 삶의 만족, 자존감, 외로움, 우울, 상태불안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집단(표본 2)과 직장인 집단(표본 3)의 다집단 요인분석 결과

형태 동일성 검증

형태 동일성 검증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요인구조가 같은지 평가하는 것으로 각 집단별 경쟁 모형을 가지고 모형들 사이 적합성을 평가한다. 3번, 10번, 14번 문항을 삭제한 15문항 3요인 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였고, 연구 모형에 대한 경쟁 모형으로 원척도 18문항 3요인 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5와 같이 대학생 표본과 직장인 표본 모두 각각의

표 3. 표본 2 대학생 대상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와 재정적 성공에 대한 열망 척도 간 상관 ($N=650$)

	성공판단	소유중심	행복추구	물질주의 총점
재정적 성공에 대한 열망	.64**	.53**	.55**	.67**

** $p < .01$

표 4. 표본 2 대학생 대상 삶의 만족, 자존감, 외로움, 우울, 상태불안에 대한 물질주의 회귀분석 ($N=650$)

준거변수	B	SE	β	t	R^2	F	p
삶의 만족	-.30	.05	-.23	-5.92	.051	35.01	.000
자존감	-.22	.04	-.21	-5.46	.044	29.80	.000
외로움	.10	.03	.13	3.25	.016	10.59	.001
우울	.17	.04	.18	4.69	.033	21.97	.000
상태불안	.24	.04	.25	6.65	.064	44.23	.000

표 5. 경쟁모형 비교를 통한 형태 동일성 검증

		χ^2	df	NFI	TLI	CFI	RMSEA
대학생(표본2)	연구 모형(15문항)	562.856	87	.829	.820	.851	.092
	경쟁 모형(18문항)	875.935	132	.771	.765	.797	.093
직장인(표본3)	연구 모형(15문항)	345.141	87	.824	.832	.861	.087
	경쟁 모형(18문항)	525.518	132	.759	.776	.806	.087

연구 모형이 경쟁 모형보다 적합도 지수가 높았고, 형태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Delta NFI = -.003$, $\Delta TLI = .009$, $\Delta CFI = -.002$, $\Delta RMSEA = -.002$).

측정 동일성 검증

형태 동일성을 검증하고 나면 두 집단 연구 참여자가 측정 도구를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측정 동일성을 검증해야 한다. 측정 동일성 검증은 형태 동일성을 만족시키는 기저 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수와 의 관계, 즉 집단 간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하여 기저 모형 적합도와 비교하여 검증한다. 표 6과 같이 기저 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 χ^2 값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Delta \chi^2_{(12)} = 19.304$, $p = .081$). 기저 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을 비교했을 때 기저 모형에 비해 측정 동일성 모형이 NFI와 CFI, RMSEA는 약간 감소하였고 TLI는 상승하였으나 큰 차이가 없으므로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다고 보았다

완전 절편 동일성 검증

절편 동일성 가정은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화 제약 모형과 각 측정변수의 절편까지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한 절편 동일화 제약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검증할 수 있다. 표 6과 같이 측정 동일성 모형과 절편 동일성 모형 적합도 차이($\Delta \chi^2_{(15)} = 242.236$, $p = .001$)는 유의했고, χ^2 에 의한 절편 동일성은 기각되었으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χ^2 는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절편 동일성 검증은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고려된 다른 적합도 지수 역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 모형 간에 약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Delta NFI = -.045$, $\Delta TLI = -.034$, $\Delta CFI = -.045$, $\Delta RMSEA = .006$).

표 6.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NFI	TLI	CFI	RMSEA
형태 동일성(기저 모형)	907.966	174	.827	.825	.855	.064
측정 동일성	927.270	186	.824	.834	.853	.062
측정 및 완전 절편 동일성	1168.506	201	.778	.800	.808	.068
측정 및 부분 절편 동일성	994.835	196	.811	.830	.842	.064

부분 절편 동일성 검증

절편 동일성이 기각되었으나 Byrne, Shavelson과 Muthén(1989)은 완전 측정 동일성이나 완전 절편 동일성이 모형 사이 동일성 검증에 필수는 아니라고 하였으며, 고정된 요인계수 외에 다른 하나 이상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완전 절편 동일성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절편 동일성이 성립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고려하여 12번, 11번, 9번, 4번, 2번 문항의 측정변수의 절편 동일화 제약을 해제한 후 측정 동일성 모형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동일성 모형과 부분 절편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차이($\Delta\chi^2_{(10)} = 67.565$, $p < .001$)는 유의하였으나, 다른 적합도 지표들이 측정 동일성 모형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Delta\text{NFI} = -.013$, $\Delta\text{TLI} = -.004$, $\Delta\text{CFI} = -.011$, $\Delta\text{RMSEA} = .002$)으로 나타났고 부분 절편 동일성은 확인되었다.

직장인 집단(표본 3) 예측타당도 검증결과

물질주의가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와 삶의 만족도 척도 사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물질주의는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했고, 약 1.1% 설명력(R^2)을 나타냈다.

대학생 집단(표본 4)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

증 결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자 대학생 515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을 실시하고 6개월 후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설문에는 총 408명(표본 4)이 참여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에 앞서 2차 설문 참여하지 않은 107명과 1차와 2차 설문 모두 참여한 408명 대상으로 물질주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r = 0.24$, $p = 8.1$). 표본 4의 2차시 설문자료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_{(87)} = 259.567$, $\text{CFI} = .898$, $\text{TLI} = .877$, $\text{SRMR} = .055$, $\text{RMSEA} = .070$ 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408명(표본 4)을 대상으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 결과 .76이었고, 하위척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성공판단 .68, 소유중심 .71, 행복추구 .66으로 대체로 양호하였다($p < .01$).

논 의

연구 2는 연구 1에서 확인된 물질주의 15문항 척도를 대학생 대상자로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고, 준거관련타당도 중 동시타당도와 예측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돈에 대한 태도 척도와 상관분석을 통해 물질주의가 돈에 대한 태도와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도

표 7. 표본 3 직장인 대상 삶의 만족에 대한 물질주의 회귀분석

($N = 392$)

준거변수	<i>B</i>	<i>SE</i>	β	<i>t</i>	R^2	<i>F</i>	<i>p</i>
삶의 만족	-.14	.07	-.11	-2.09	.011	4.35	.038

변별되는 새로운 개념임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의 관련성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김정훈, 이은희, 2002; 홍은실 등, 2001). 물질주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열망 척도의 재정적 성공에 대한 열망 하위척도와 상관분석을 통해 동시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삶의 만족, 자존감, 외로움, 우울, 상태불안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한국판 물질주의척도가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예측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는 물질주의와 여러 심리적 변인 사이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김가영, 임남연, 서은국, 2016; 김경미, 2014; 유연재, 이성준, 2015; 홍기원, 김연우, 2015), 이 연구에서 타당화 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가 심리적 안녕과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를 대학생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모두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 구조의 형태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별로 경쟁 모형을 가지고 모형 사이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 모두 경쟁 모형인 원척도 18문항 3요인 모형보다 연구 모형인 15문항 3요인 모형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Richins와 Dawson(1992) 가정대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가 성공판단, 소유중심, 행복추구 3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 후 각 문항 요인계수가 동일한지 검증하기 위해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과 형태 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고, 측정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형태 동일성 모형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문항 절편이 동일한지 검증하기 위해 요인계수와 절

편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절편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고, 부분 절편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에 대한 요인 동등성이 검증되었고, 한국판 물질주의척도가 대학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예측타당도 검증 결과 한국판 물질주의척도가 삶의 만족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 결과 한국판 물질주의척도가 시간적 안정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합논의

물질주의는 돈, 물질의 획득과 소유가 개인 삶의 우선순위로 작용하게 하는 가치이다(Richins & Dawson, 1992). 가치는 개인이 원하는 목표나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식이고, 가치에 따라 목표와 행동 우선순위가 결정된다(Schwartz, 1992).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초고속 정부주도 경제성장을 경험하며 물질주의의 가치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러한 물질주의는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은 물론 청소년과 아동에게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나타난다(백지숙, 박성연, 2004; 천주영, 2003).

국외에서는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의 부적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이 존재할 만큼(예: Dittmar et al., 2014) 다양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물질주의가 한국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화 변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최근에야 실시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물질주의는 심리적 안녕감(김

경미, 2014) 그리고 자존감(유연재, 이성준, 2015)과는 부적 관계가, 불안 및 우울(홍기원, 김연우, 2015), 외로움(김가영 등, 2016), 그리고 섭식장애(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내 물질주의 연구들은 국외 물질주의척도를 타당화 과정 없이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해왔다. 이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Richins와 Dawson(1992)의 물질주의 가치척도를 문항의 의미를 최대한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한국문화에서 이해 가능하도록 번안하였으며, 타당화 과정을 거쳐 물질주의와 관련된 국내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요약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고, 연구 2는 연구 1에서 확인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를 대학생 집단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집단에게 적용하여 타당화 및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 사이 요인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를 측정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모형이 적합하였고, 3번('사람들이 소유한 물질의 양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지표는 아니다.'), 10번('나는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한다.'), 14번('나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기준보다 낮았다. 3번 문항과 14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프랑스나 러시아와 같은 다른 문화권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Griffin et al., 2004; Watchravesringkan,

2012; Wong et al., 2003). 10번은 소유중심 물질주의 측정 척도로서 문화권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른 문제가 있었다(Denegri et al., 201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3번, 10번, 14번 문항을 삭제한 15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Richins는 2004년 자신의 물질주의 가치척도의 심리측정적 적합도를 북미 15개 자료로 재검정한 결과 18문항보다는 6번, 7번, 10번 문항을 제외한 15문항이 더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Richins(2004)의 물질주의 가치척도에 대한 재검증도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과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었으나 저자가 기존의 18문항 모형보다 심리측정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제시한 15문항 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설정하여 이 연구의 연구 모형과 비교한 결과 우리 연구 모형이 통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2는 표본 1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대학생 표본 2를 대상으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와 더불어 돈에 대한 태도 척도, 재정적 성공에 대한 열망 척도, 삶의 만족 척도, 자존감 척도, 외로움 척도, 우울 척도, 상태불안 척도를 측정하여 수렴 및 변별타당도와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와 돈에 대한 태도 척도 사이 상관분석 결과 물질주의가 돈에 대한 태도와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도 변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었고, 재정적 성공에 대한 열망 척도 사이 상관분석 결과 동시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물질주의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삶의 만족, 자존감, 외로움, 우울, 상태불안을 준거변수로 사용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물질주의가 관련 변인들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들로만 구성된 한계가 있어 연구 2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표집하여 표본 3을 구성하였다.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를 대학생과 직장인 물질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었고, 나아가 부분 절편 동일성도 확보되어 대학생과 직장인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본 3을 대상으로 예측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물질주의가 직장인의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개월 간격으로 표본 4를 표집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 결과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는 시간적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는 국내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의 심리적 안녕과 정신건강 문제를 설명할 사회문화적 변인으로 물질주의 연구를 가능하게 한 의의가 있다. 사회 및 성격심리학 분야에서는 어떠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개인으로 하여금 물질주의 가치를 더 추구하게 만드는지 물질주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근현대 시대 급격한 사회 변동과 압축적인 경제성장 결과로 경기 침체, 실업자 문제, 빈부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이에 따른 우울, 불안 그리고 자살률은 증가했다(최인숙, 2013). 이러한 사회현상은 한국인의 물질주의 가치를 더욱 심화시키는 변인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인의 반응이 연구될 수 있다.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는 물질주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 발달단계에서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주요 발달과업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가치관의 형성은 자아정체감 형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김승중, 2006). 최근 국외에서는 아동의 미디어 및 광고에 노출되는 정도와 물질주의 발달, 이에 따른 적응 문제 및 개입 방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다(Goldberg, Gorn, Peracchio, & Bamossy, 2003; Kasser, 2016; Oprea, Buijzen, & Valkenburg, 2012). 상담 및 임상 심리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가치, 그 중에서도 물질주의 가치와 내담자의 심리적 부적응 그리고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 연구를 통해 내담자 증상완화를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는 물질주의와 부정적 정서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Roberts, Tsang, & Manolis, 2015), 기본심리욕구는 학업성취도 및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나, 설경옥, 박선영, 2017). 이와 같은 매개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상담자는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내담자에게 감사를 더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개입하거나 기본심리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입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원척도 18개 문항을 변안하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국외 물질주의척도 타당화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3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포함된 문항을 살펴보면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하위요인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어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를 활용하여 물질주의 가치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삭제된 3개 문항이 이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이나 수도권 성인기 초, 중기 직장인 특

성을 반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성별, 지역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전체 18문항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원척도와 번안된 척도 사이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판 물질주의척도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원척도의 번안판이므로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물질주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이해하는 물질주의 가치 개념을 반영하는 추가 문항들을 개발하여 타당화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재선, 서은국 (2015).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63-83.
- 김가영, 임낭연, 서은국 (2016). 외로움과 돈에 대한 왜곡된 믿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1), 1-21.
- 김경미 (2014). 대학생의 물질주의와 주관적 안녕감 및 대학생활동 만족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295-314.
- 김계수 (2010). AMOS 18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승중 (2006). 가치관 정립을 위한 상담자의 역할 :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가치관 정립에 관한 연구. *상담과지도*, 41, 373-387.
- 김아영, 임은영 (2003). 타문화권 척도 번안과 정에서 적용되는 절차들 간의 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1), 89-113.
- 김영신, 박지영 (2006). 소비자소외감, 물질주의가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27-41.
- 김유나, 설경옥, 박선영 (2017).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와 심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3), 237-268.
- 김정숙 (1999). 대학생의 과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소비문화연구*, 2(2), 43-65.
- 김정훈 (2002). 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0(3), 165-175.
- 김정훈, 이은희 (2002).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유형에 따른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소비가치,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21-128.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선영, 도현심 (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9(1), 229-24.
- 백경미, 이기춘 (1996). 도시주부의 과소비성향과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4(1), 161-176.
- 백지숙, 박성연 (2004).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7), 119-129.
- 서정희, 석봉화 (1998). 청소년소비자의 물질주의가치와 소비지향적 태도가 과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3), 131-143.
- 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성인기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이상성식행

- 동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875-896.
- 송태민, 김계수 (2012). 보건복지연구를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한나래.
- 염유식, 김정미, 이은주, 이승원 (2015).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유연재, 이성준 (2015). 마음챙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물질주의와 자기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91-110.
- 이민아, 송리라 (2014). 소득, 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 한국인구학, 37(4), 89-114.
-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7(2), 25-43.
- 이은희, 김성숙 (2000). 인천지역 청소년소비자의 물질주의 가치 성향과 관련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1(2), 43-59.
- 이지혜, 김정숙 (1997). 제주도 청소년소비자의 과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9(2), 161-174.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5(1), 277-290.
- 임영진 (2012).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77-896.
- 장승진 (2011). 행복의 정치경제학: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10(2), 48-66.
- 전귀연 (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87-103.
- 주섭중 (1995). 소비행동에 있어서 물질주의성향과 정보탐색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26, 257-285.
- 천주영 (2003). 초등학교 아동의 물질주의 성향과 충동구매 경향성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0(1), 151-172.
- 최상진, 전경구,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최인숙 (2013). 한국과 일본의 탈물질주의. 아세아연구, 56(4), 233-264.
- 한덕웅 (2005). 한국문화에서 주관안녕에 관련되는 사회심리 요인들.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1), 138-139.
-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1996).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 허경옥, 백은영, 정순희 (1997). 돈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 소비자학연구, 8(2), 43-59.
- 홍기원, 김연우 (2015). 물질주의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의 실험적 탐색. 로고스경영연구, 13(1), 1-18.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청소년용 여성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 홍은실, 황덕순, 한경미 (2001). 여자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성향과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금전사용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19(1), 143-158.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 Belk, R. W. (1984). Three scales to measure constructs related to materialism: Reliability, validity, and relationships to measures of happin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291-297.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1(2), 230-258.
-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é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56-466.
- Cho, H. J., Jin, B., & Watchravesringkan, K. T. (2016).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materialism in emerging and newly developed Asian market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Humanities and Technology*, 4(1), 1-10.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4), 349-354.
- Denegri, M., Baeza, M. J., Salinas-Oñate, N., Peñaloza, V., Miranda, H., & Orellana, L. (2014). Materialism in Pedagogy students in Chi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7(2), 505-521.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Seoul: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 Fischer, R., & Boer, D. (2011). What is more important for national well-being: Money or autonomy? A meta-analysis of well-being, burnout, and anxiety across 63 socie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1), 164-184.
- Flynn, L. R., Goldsmith, R. E., & Kim, W. M. (2013). A cross-cultural study of materialism and brand engagement.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5(3), 49-70.
- Goldberg, M. E., Gorn, G. J., Peracchio, L. A., & Bamossy, G. (2003). Understanding materialism among youth.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3(3), 278-288.
- Griffin, M., Babin, B. J., & Christensen, F. (2004).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the materialism construct: Assessing the Richins and Dawson's materialism scale in Denmark, France and Russia.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7(8), 893-900.
- Grouzet, F. M., Kasser, T., Ahuvia, A., Dols, J. M. F., Kim, Y., Lau, S.,...Sheldon, K. M. (2005). The structure of goal contents across 15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5), 800-816.

- Hurst, M., Dittmar, H., Bond, R., & Kasser, T.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tic values and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6*, 257-269.
- Kahle, L. R., Beatty, S. E., & Homer, P. (1986). Alternative measurement approaches to consumer values: the list of values (LOV) and values and life style (VAL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3), 405-409.
- Kasser, T. (2016). Materialistic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 489-514.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410-422.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80-87.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deira, W. J., Santini, F. D. O., & Araujo, C. F. (2016). Materialistic behavior in adolescents and children: A meta-analysis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ts. *Revista de Administração Contemporânea, 20*(5), 610-629.
- Leonard-Barton, D. (1981). Voluntary simplicity lifestyles and energy conserv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3), 243-252.
- Liao, J., & Wang, L. (2017). The structure of the Chinese material value scale: An Eastern cultural view. *Frontiers in Psychology, 8*, 1-11.
- Oprea, S. J., Buijzen, M., & Valkenburg, P. M. (2012). Lower life satisfaction related to materialism in children frequently exposed to advertising. *Pediatrics, 130*(3), 486-491.
-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ichins, M. L. (2004). The material values scale: Measurement properties and development of a short for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1), 209-219.
- Richins, M. L., & Dawson, S. (1990). Measuring material values: A preliminary report of scale developm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7*(1), 169-175.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Roberts, J. A., Tsang, J. A., & Manolis, C. (2015). Looking for happiness in all the wrong places: The moderating role of gratitude and affect in the materialism-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0*(6), 489-49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chi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 Spielberger, C. D.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Form Y).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ist Press.
- Watchravesringkan, K. (2012). Cross-cultural equivalence of materialistic values scale (MVS): An exploratory stud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ailand. *Journal of Targeting, Measurement and Analysis for Marketing*, 20(3-4), 235-253.
- Wilhelm, M. S., Varcoe, K., & Fridrich, A. H. (1993). Financial satisfaction and assessment of financial progress: Importance of money attitud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1), 181-198.
- Wong, N., Rindfleisch, A., & Burroughs, J. E. (2003). Do reverse-worded items confound measures in cross-cultural consumer research? The case of the material values sca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0(1), 72-91.
- Wright, N. D., & Larsen, V. (1993). Materialism and life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Consume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nd Complaining Behavior*, 4(1), 158-165.
- Yamauchi, K. T., & Templer, D. J. (1982). The development of a money attitud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5), 522-528.
- 논문 투고일 : 2018. 01. 15
1 차 심사일 : 2018. 01. 17
게재 확정일 : 2018. 08. 23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Material Values Scale

Ji Hae You

Kyoung Ok Seol

Ewha Womans University

Materialistic values can be an important variable to understand Korean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Material Values Scale (K-MVS)(Richins & Dawson, 1992). In study 1, we perform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to ascertain the three factor model of the original MVS using 417 Korean undergraduate student data(sample 1). The CFA confirmed the three-factor model of the MVS. Yet, three items that yielded low factor loadings in this study as well as in other MVS validation studies were excluded from the final model. In study 2, content, construct,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K-MVS were examined with 650 undergraduate student data(Sample 2). We also tested measurement invariance across two groups(i.e., college student group of Sample 2 and employee group of Sample 3).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three-factor model of the K-MVS hold true across the two groups. Lastly test-retest reliability was calculated with 408 female college student data(Sample 4) that filled out K-MVS twice within 6 month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MVS i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for assessing materialistic values in Korea.

Key words : Materialism, Korean Material Values Scale, validity, reliability

부록 : 물질주의 가치 척도

성공판단	
1	나는 고가의 집,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부럽다.
2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이다.
3	사람들이 소유한 물질의 양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지표는 아니다.(r)
4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5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좋다.
6	나는 타인의 물질적 소유물에 별 관심이 없다.(r)
소유중심	
7	나는 대개 내가 필요한 물건만 산다.(r)
8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 소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r)
9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r)
10	나는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한다.
11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12	나는 럭셔리한(호화로운) 삶이 좋다.
13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 비해 물질적 소유물을 덜 중요하게 여긴다.(r)
행복추구	
14	나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데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r)
15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16	더 비싸고 좋은 물건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r)
17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18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매우 속상하다.

주. (r)은 역채점 문항이고,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에서는 3번, 10번, 14번 문항을 삭제하고 구성하였다.